
KDI 설립 외국인 자문교수 및 해외 석학 인터뷰 촬영 출장 복명서

2017. 4. 3.

I.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KDI는 다가오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KDI 원로들의 증언' 편찬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음. 편찬사업에는 KDI 설립 과정과 1970년대에 KDI가 수행한 정책연구 자문 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외국인 자문교수*의 인터뷰를 통한 생생한 증언을 담는 것은 물론 인터뷰 영상의 편집 등 재가공을 통해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 KDI 외국자문위원회 위원(1971-72년): Irma Adelman, Hollis B. Chenery, David C. Cole, Richard A. Musgrave, Gustav Ranis, Edward S. Saw, Miyoehei Shinohara
 - 즉, KDI 설립 당시 자문교수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나 역점을 둔 사항,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에피소드 등 비하인드 스토리, 나아가 KDI가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고견 등을 청취
 - 또한 자문교수들이 한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70~80년대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한 학자들임을 감안, 한국경제의 고속성장 요인이 무엇인지, 향후에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평가와 비전에 대한 인터뷰를 하여 대한민국경제발전관의 교육자료로 활용
- 해외 경제석학 인터뷰는, 석학들이 생각하는 세계 속 한국경제 이야기, 해외에서 바라 본 경제발전 경험 등을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여 대한민국경제발전관의 학습콘텐츠 및 교육영상으로 활용
 - 참고로, 현재 KDI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위탁사업으로 대한민국경제발전관(이하 발전관)을 건립하고 있음. 발전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입체적인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
- 한편,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교수, 해외석학 외에 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저명인사들을 추가 인터뷰하여 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구성하고자 하며, 영상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유사 기관 방문 등도 동 출장 일정에 포함시킬 예정

2. 출장개요

□ 기 간 : 2017년 2월 25일(토)~3월 9일(목), 입·출국일 포함(출장자별 일정 상이)

	일 정	출 장 자
1	2017년 2월 25일(토) ~ 3월 3일(금), 3월 6일(월) ~ 7일(화)	김광성
2	2017년 2월 26일(일) ~ 3월 9일(목)	선종인

□ 출장지: 워싱턴D.C, 뉴저지, 시카고, 매사추세츠, 샌프란시스코(미국)

□ 출장자 (총 2인)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김광성	KDI 초빙연구위원	해외석학 인터뷰 진행
2	선종인	KDI 전문연구위원	해외석학 인터뷰 진행 및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3. 세부추진일정(안)

시 간	일 정	비 고
2월 26일(일): 워싱턴D.C 도착, 1일차		
2월 26일(일) 10:15	인천국제공항 출국	선종인
2월 26일(일) 09:50	워싱턴D.C 공항 도착	
2월 26일(일) 08:30	샌프란시스코공항 출국	김광성
2월 26일(일) 16:22	워싱턴D.C 공항 도착	
10:00~12:0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14:00~17:00	인터뷰 리허설 진행, 수정·보완 및 시나리오 점검	
2월 27일(월): 2일차		
08:00~10: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0:00~11:30	인터뷰 진행: Prof. Barro	
11:30~12:30	인터뷰 장소 정리 및 인터뷰 장소 이동	
12:30~14:3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4:30~16:00	인터뷰 진행: Prof. Krueger	
16:00~17:00	인터뷰 장소 정리	
17:30~19:30	저작물 활용방안 논의 및 저녁간담회	
2월 28일(화): 3일차, 뉴저지		
09:00~12:00	이동(워싱턴D.C→뉴저지)	
13:00~15: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6:00	인터뷰 진행: Prof. Deaton	
16:00~16:30	인터뷰 장소 정리	
16:30~19:00	이동(뉴저지→워싱턴D.C)	
19:00~22:00	Holocaust Museum 담당자 면담 및 저녁 간담회	
3월 1일(수): 4일차		
09:00~11: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1:00~11:45	인터뷰 진행: 김용 총재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WB 관계자 면담: 자문위원회 관련 건	
15:00~16:00	촬영장비 재확인	
16:30~17:00	인터뷰 진행: Paul Romer 수석이코노미스트	
17:00~18:00	인터뷰 장소 정리	
18:00~	이동(워싱턴D.C→시카고)	항공
3월 2일(목): 5일차, 시카고		
09:00~11: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1:00~12:00	인터뷰 진행: Prof. Lucas	
12:00~13:00	인터뷰 장소 정리	
16:30~	이동(시카고→보스턴)	항공
3월 3일(금): 6일차, 보스턴		
9:30~11:3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1:30~13:30	인터뷰 진행: Prof. Perkins	
13:30~14:30	점심식사	
15:00~17:00	인터뷰 진행: Prof. Cole	
17:00~18:00	인터뷰 장소 정리	
19:00~20:30	저녁간담회	
3월 4일(토): 7일차		
09:30~11:00	인터뷰 1차 내용 정리	
13:00~15:00	MFA 방문	
15:00~16:00	Boston Tea Party Ship Museum 방문	
3월 5일(일): 8일차		
10:00~12:00	인터뷰 영상 초안 가편집 및 송부	
13:00~15:00	인터뷰 질문지 확인 및 시나리오 점검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8:00	Harvard University 견학	
3월 6일(월): 9일차		
11:00~13: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3:00~14:00	인터뷰 진행: Prof. Acemoglu	
14:00~15:00	인터뷰 장소 정리	
17:30~	이동(보스턴→샌프란시스코)	항공
3월 7일(화): 10일차, 샌프란시스코		
12:00~14:00	인터뷰 장소 확인 및 촬영장비 셋팅	
14:00~15:00	인터뷰 진행: Prof. Eichengreen	
15:00~16:00	인터뷰 장소 정리	
16:30~18:00	인터뷰 최종 정리 및 마무리	
3월 8일(수): 11일차		
3월 8일(수) 11:30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발	
3월 9일(목) 17:30	인천국제공항 도착	

4. 주요 면담자(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Robert J. Barro	Harvard University 교수	
2	Angus Stewart Deaton	Princeton University 교수	
3	Robert E. Lucas, Jr.	The Univ. of Chicago 교수	
4	Daron Acemoglu	MIT 교수	
5	Barry Eichengreen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교수	
6	Jim Yong Kim	World Bank 총재	
7	Paul Romer	World Bank 수석자문위원	
8	Anne Osborn Krueger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교수	
9	David Cole	Harvard University 명예교수	
10	Dwight D. Perkins	Harvard University 명예교수	
11	Miriam Bensky	World Bank Science of Delivery 팀장	
12	David Ross	Lurner Group Consulting & P21 CEO	
13	Paul a. Shapiro	Holocaust Museum 국제협력분과 국장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4	Radu Ioanid	Holocaust Museum 아카이브분과 국장	
15	Maria del Camino Hurtado Dominguez	World Bank GDI 팀장	

II. 출장주요내용

□ 해외 경제석학 인터뷰(일부 발췌)

○ Robert Barro 교수

- 지금 한국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잘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과거에 지혜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현재에도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 교육은 생산성을 뒷받침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인당 GDP는 생산성 상승으로 가능한데 이는 교육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을 100% 예측하고 피해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두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행동이 사건 발생 전에 취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제도와 정부의 역할이 위기 발생 빈도를 낮추어 줄 수 있으며, 범위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적으로 정부가 성공할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발전에서 이러한 방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경제적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방향의 개방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한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이 시작하는 경우 약 1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북한이 남한보다 약 130년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동서독 통일 이전의 차이보다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고령자의 활용을 위하여 그들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다.

○ Anne Krueger 교수

- 1958년도가 한국 경제발전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들이 당시에 굉장히 절망적이었다. 원조, 변동환율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이었다.
- 1970년 초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남산 밑에 도쿄호텔에 묵었다. 길가에 작은 상점이 있는데, 10~14세로 보이는 아이들이 오후 3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물건을 사러 가면 공부를 멈추고 계산을 해 주었다. 부

모님이 상점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그제서야 학교에서 왔고, 집에 늦게 돌아와 숙제까지 한다고 들었다.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배움에 열망이 있었다. 엉망인 현실(mess)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 세계개혁, 수입자유화정책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떠한 개혁이 시작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축적되고 누적된 프로세스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이 수입가능한 것만 나열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1966년까지 고집하다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변화였다. 당시 정부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수출지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 세계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개방되어 있다. 한국이 발전할 당시에는 한정적인 국가만이 산업제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시장이 있는 장점이 있다. 수출장벽이 없어지고, 운송 비용이 낮아지는 등 현재의 수출은 보다 수월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어린 세대는 1950년대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의 가난에 대해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어린 세대는 ‘한국의 기적’이 가져온 이점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Angus Deaton 교수

- 지식공유와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개발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책의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KDI가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들은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아는 것 보다 세부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성장을 배워 각 국가에 적용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 아프리카의 경우 원조가 독재자에게 흘러들어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농지개혁 등 다양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조가 생산성있게 사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경제학자들은 항상 소득과 부에, 의사들은 건강에,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저의 연구결과는 소득이 건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이 건강을 야기하기도 하고, 건강이 소득을 가져오기도 하며 아마도 다른 조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도 역할을 다 하여 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 만약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왜 상관을 하겠는가? 즉, 불평등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가져오는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불평등하며,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없애는 노력은 불평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GDP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며, 무엇이 좋은 인디케이터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역사,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용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Robert E. Lucas Jr.

- 몇 년 전 울산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동하였는데,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기회였다. 울산 정유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역사를 들었다. 정부와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다. 1962년에 한국 정부는 걸프사와 계약을 맺고 정유공장을 세우게 되고, 한국인들은 미국사람들로부터 일을 하면서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다. 1980년에 미국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되어, 공장은 SK에너지로 변화한다. 지금은 베트남에 한국사람들을 보내 미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 그래프를 살펴보면, 위쪽의 붉은라인은 모든 국가의 평균을 의미한다. 동아시아는 1970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2006년을 보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가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녹색 라인은 남아시아를 의미하는데 동아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진보를 보여준다. 이렇게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지금 가난이 어디 국가에 몰려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인적자본은 교육과 연계된다. 그러나 학교에 앉아 있는 것 만으로 마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에 앉아 있는 것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움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가족이 이동하게 되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김용 총재

- 1959~60년 WB는 ‘한국은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 발표했다. 천연자원은 북한에 있고, 농업 위주 국가이고,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의 한국은 희망이 없었다.
-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저를 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를 한국이 이룬 성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은행의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OECD에 가입한 후 이제는 공여 국가가 된 굉장한 독특한 국가이다.
- 그러나, 한국인들의 결심이 주요했다고 본다. 한국 여성의 결심이 한국경제발전 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만약 저에게 한국이 했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묻는다면 현재 여성 노동력이 가장 낮은 국가가 한국이기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이 경제발전의 첫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또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 한국의 교육은 타 국가와 다르게 특별하다. ‘지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학생들은 오전7시부터 저녁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법으로 11시 이후 수업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저녁 11시까지만 공부한다. 많은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지만, 한국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국가는 드물다.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공한 기업가 보다 학자가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산업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오해라고 생각한다.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경쟁적이었다. 재벌 사이에 경쟁을 만들어서, 세계의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수 있었다고 본다.
- 1950년대에는 원리주의적인 유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1970~80년대에는 유교 때문에 경제성장을 했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 KDI와 세계은행의 인연은 매우 끈끈하다.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 조금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 회담을 마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KDI와 기업가 정신 혁신을 진행 중인 중동 그룹의 환상적인 협업에 대해 듣고 왔다. 이렇게 지금도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이다. 세계은행은 어떻게 한국 같은 국가의 개발 지식을 배우고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KDI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다.

○ Paul Romer 수석이코노미스트

-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한 건강한 경제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약간 놀랍고 도발적일지 모르겠다. 학교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2배 좋은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배치되었을 때는 전체 노동시장의 2%일 것이다. 왜냐면 이미 일하고 있던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교육의 영향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까지는 몇 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훨씬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이 한국에서 진행된 산업정책과 도시화가 경제발전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리더십과 계획이 없다면 실현될 수 없다.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 계획 등이 있어야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조성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의 이득을 위해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게 되는 것이다.

○ Dwight Perkins 교수

- 한국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한강의 기적’이란 기적적으로 경제발전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일무의하다는 이야기도 옳지 않다. 일본, 타이완도 비슷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진짜 테마는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정부의 굳은 의지와 가난을 없애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으며, 그 대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도에 거의 없었던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산업 발전을 위해 박 대통령은 수출확대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 정부의 깊은 관여가 한국 경제발전의 또 하나 특징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 박 대통령 시기이다. 박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이 군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

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남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북한을 살펴보면 발전 초기 남한보다 잘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계속해서 한국이 동일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가장 큰 터닝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60년대에는 수입과 수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을 타겟으로 결정하였다. 재벌을 선택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목표를 정하여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타겟화 된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 남한과 북한은 동서 독일의 상황보다 훨씬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이 만약 국경을 개방한다고 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쏟아져 올 것이다. 유일하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며, 시장경제가 북한에 소개되고 여러해에 걸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 가서 공장을 짓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통해 비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David Cole 교수

- 1951년 한국의 사람들은 절망적이었다. DMZ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한강 다리들, 건물, 공장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1964년에 다시 한국을 오게 되는데, USAID의 팀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에 베트남에서 2년, 필리핀에서 1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USAID의 존 버스틴 국장이 한국으로 파견갈 팀에 경제 담당관으로 소속되게 되었다. 당시 저를 도와줄 RA를 찾고 있었고, 미주리대학의 경제학을 졸업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 함께 2년을 일하게 되었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의 통번역을 담당해주었는데, 그 학생이 바로 김만제였습니다. 그는 연구를 하고 자문 내용을 통번역 하다 보니 한국 경제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을 기획할 때 김학렬 부총리와 저는 ‘10:30 미팅’을 만들었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외부 자문위원과 데이터 등을 모아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함을 느꼈고, KDI를 세우게 기획하였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연구소의 설립만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KDI 설립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이 수월히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관심 또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 KDI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지원이 뒷받침 되었는데, 재정 지원, 주거 지원 등이 그 일환이다. 연구의 결과는 존중받았고, 계속해서 높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이 한국인이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 Daron Acemoglu 교수

- 경제제도는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활동, 노동 투자, 교육, 이노베이션, 생산성 향상 등이 모두 경제성장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제도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제도를 통해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다.
- 북한은 극단적인 독재정치이다.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김씨 일가에 의한 통치가 톱-다운 시스템을 가지고는 힘을 분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검토 시스템이 없으며, 상, 하의원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정치 파워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강조한다고 본다. 이를 착취적 정치제도라고 부른다. 반대로 포용적 정치제도는 정치의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며, 실행에 대해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된다. 세금제도, 공공서비스, 교육시스템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이를 포용적 정치제도라고 일컫는다.
- 대다수의 국가들이 역사들이 노예 노동을 활용하였고, 사적재산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던 국가들이 많다. 시장경제가 발생한 배경이며,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사적재산의 보호를 통해 개별적 기업가, 가족이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기업가, 가족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점 규제 등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현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의 일환으로 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제도이며,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국의 1950년대는 독재정치로 인한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충분히 개방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와 사회가 변화하였고, 정치 변화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가 무너지게 되어, 다이나믹한 사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포용적 경제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 Barry Eichengreen 교수

- 경제발전에 중요한 교육과 인적자원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이 가장 중요했다. 어려웠던 외부환경 극복과 경제의 안정화, 국가 안보 등이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었던 정책 중 일부였다.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를 했던 원조와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로부터 나왔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복제할 수 없다. 대신, 배울 수는 있을 것이다. 교육에 투자한 것, 경제를 개방한 것 등은 한국이 1960년에 이룬

성과는 지금 WTO를 통한 규제 등이 있기에 다른 국가가 동일하게 따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세계경제는 과거보다 더 경쟁적이다. 한국이 산업화를 이룰 때는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소수 국가들과 경쟁하였으나, 지금은 훨씬 많은 국가와 경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중화학 공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과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화학 공업은 수출지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한국 경제개방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이후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에 집중된 것, 정부가 일정한 투자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던 것, 재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 등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이 위기를 겪은 이유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은행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중화학공업 드라이브 정책이 종료되었을 때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은행의 대출과 엄청난 투자를 유지하도록 독려했다. 이 점이 한국 경제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는 IMF와 OECD의 가입으로 한국은 자본자유화, 외화재정 자유화 등을 시행해야만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이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마지막으로 변동환율제도로 인하여 달러 환율이 높아지며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IMF도 역할을 다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개혁을 통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은 원조를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기도 하였고, 외국 자문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미 1960년에 한국의 경제학과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경제학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경제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하였다. 저는 퍼킨스 교수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미 퍼킨스 교수는 1970년에 KDI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버클리 대학교 동료인 아델만 교수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녀는 거의 할리우드 스타급이었다. 한국 정책입안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 저는 교육자로서 이 질문에 있어서는 편향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제발전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생산성 향상은 교육을 통해 시작된다고 강하게 믿는다. 한국의 교육은 몇 개의 대학교로부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존재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사람들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높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잘해 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등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이 한국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 One Source, Muti Use(원소스 멀티유즈) 방안 논의

- 해외에서 바라 본 경제발전 경험 등이 영상 기록물로 제작되는 것으로 학습 콘텐츠 및 교육 영상으로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지며, 한국경제의 고속성장 요인이 무엇이고,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석학들의 의견을 영상화 하는 것이 필요
- 우선, KDI의 역할 중 경제교육 부분에 활용: 강의 중 석학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영상물 제작
- 내용을 압축하여 학습전시관의 콘텐츠와 매칭되는 부분에 전시: 1분3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중요 포인트를 전달하는 교육 기법으로 활용
- 긴 호흡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구현: 석학들의 깊이 있는 고견을 약 5~10분 내외로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함. 이는 접근성, 시간제약 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추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파급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관련 기관 담당자 협의

- 대한민국경제발전관의 외국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교환
- 아카이브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Case Study)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
- 이를 위하여 홀로코스트 메모리얼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담당자 면담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 개최 필요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아카이브
- 아카이브의 기본은 무엇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며, 많은 것을 모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 파악을 위하여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료(서지류, 영상류 등)을 한 공간에서 연구자들이 접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
- * 「Archival Guide: To the Collections of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를 제작하여 배포함.
- Archival Guide는 홀로코스트 관련 전세계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수집한 내용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카테고리화 하여 연구자들이 첫 번째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거나, 메모리얼을 방문하여 접근 가능

- 2014년 중반, 약 8천만장이 넘는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고, 매년 평균 150개의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음. 이는 개인 및 가족사를 담고 있는 페이지와 자료를 제외한 통계로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음.

○ 세계은행 사례연구(Case Study)

-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이미 Open Learning Campus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식과 지식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연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사례연구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것이 정책수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서술되어야 한다고 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은행의 사례연구는 Science of Delivery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KDI와 이미 기 연구된 분야가 있음. 이에 세계은행은 지속적으로 KDI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식 공유를 진행코자 함.

Ⅲ. 참고자료-인터뷰 질문지

공통질문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The Korean Miracle

- Why Korea, and not so many other countries? What factors do you think were key to Korea's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nd what lessons would you draw for other countries?
 - a. What evidence or data convinces you about the factors helped drive Korea's development.
 - b. What do you think were some of the major turning points?
- In telling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what do you think is Korea's narrative and major themes? Before you answer that question, what would be the title of that story?
- Would you please share an anecdote about Korea, either personal or professional, that tells a story about Korea's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Its February/March 2017. Give us a state of the world economy as you see it: how much we've come along in reducing poverty, and how much further we need to go.
- Can aspiring development countries replicate Korea's export oriented development model in today's global economic context, especially considering how the rules and view of international trade have changed so much since Korea took off in the late 1960s?
- Give us your thoughts on the logic that if development starts with people, then we have to start with education.
- What advice would you offer to aspiring policymakers and reformers?

KDI Questions(Cole, Krueger, Perkins 교수만 해당)

- How did you become associated with KDI at the beginning?
- How could you communicated with KDI fellows at that time when the internet had not be invented?

Robert Barro 교수

- Please explain the cause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and subsequent, impact on Korea's economy? Moreover, how did Korea respond to the 1997 crisis and subsequent crises in your view? Is the Korean economy better or worse off?
- Can you give an appraisal of the Korean economy's performance since you wrote

that Business Week article in 2003, “South Korea: How to Keep the Miracle Going.” Has Korea implemented the kind of policies needed to sustain its growth and development? Has Korea’s economy become less market oriented?

- One of the key lessons from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a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acro-economic stabilization measures in the 1980s. Many saw it as an unpopular but necessary policy. Could you explain the importance of price stability to an economy and why it’s critical to manage inflation despite the burden it puts on society?
- One of the biggest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facing Korea is a rapidly shrinking labor pool due to rapid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fertility rate. How can countries like Korea which rely heavily on human capital address this challenge?
 - a. Why investing into education is important in order to develop economy?
 - b. Is there any correlation of extending schooling with improving economy?
-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the stark contrast in the development path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Where do we begin to think about how we can facilitate North Korea’s development when the time comes? Do we use South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s a model? Could you roughly estimate how long it would take North Korea to catch up 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how far behind is North Korea’s economy.

□ Anne Krueger 교수

- Studies of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the “authoritative work” on Korea’s early development. Can speak about your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project? In looking back, have any of your views and research conclusions changed about Korea’s early development period or development in general?
- Could you give us an idea of how research and policymaking was conducted in the year years of Korea’s development?
 - a. How important is it to have continuity and consistency in policy making to achieve desire outcomes?
- What kind of impact did KDI and early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on Korea’s development?
- What do you think about foreign aid? Was the impact of it positive or negative for Korea’s early year?
- Can you speak about your experiences as an economist and women early in your career? Adn do you think gender equality in Korea has improved since early development year?
- When you were at the world bank from 1982 to 1986, was any of you work related

to Korea?

Angus Deaton 교수

- There are many kinds of inequality, for example, income, gender, race inequality etc. How do you first define inequality and then measure inequality?
 - a. Can you explain why too much inequality is not good and why too little inequality is also not good?
- How could we sustain growth for the future?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What has your work revealed about whether income growth results in health improvements?
 - a. Do you think income needs to be health? or do you think health needs to be income?
- Kuznet's curve hypothesizes that economic development leads to inequality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s inequality a tradeoff of economic development? Have you observed this in your studies on poverty and inequality?
- There are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providing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aid. For example, many people believe foreign aid huge and positive impact on Korea's development. could you clarify your thoughts on the orle and impact of foreign aid?
 - a. Which way is possible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What should we do?
- One of the biggest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facing Korea is a rapidly shrinking labor pool due to rapid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fertility rate. Have you seen any discernable patterns in your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aging population? How can countries like Korea which are experiencing aging population and rely heavily on human capital address this challenge?
- Why is it important to know how to measure poverty? Which methods you use of measuring economies growth?

김용 총재 인터뷰

- Why Korea, and not so many other countries? What factors do you think were key to Korea's transformation? And what lessons would you draw for other countries? I know you talked about Korea its illteracy rate. Could you explain it?
- Please comment on the World Bank's long standing partnership with Korea and KDI; its unique history, and the kinds of things we can do to strengthen it and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 It's March 1, 2017. Give us a state of the world as you and the World Bank see it: how much we've come along in poverty reduction, and how much further we need to go. What do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and KDI need to do o achieve our

goals.

- Give us your thoughts on the logic that if development starts with people, then we have to start with education.
- We are not good at problem solving, basically. How would you explain the Science of Delivery for people who are learning about it for the first time?
- Please talk about why you think case studies are an important teaching tool and can help better problem solving?

Paul Romer 수석이코노미스트 인터뷰

- Are we doing better understand what happening in Korea and Korea Miracle? Can aspiring development countries replicate Korea' s export oriented development model in today' s global economic context?
- Why Korea, and not so many other countries? What factors do you think were key to Korea's transformation? And what lessons would you draw for other countries? I know you talked about Korea its illteracy rate. Could you explain it?
- We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governance. Could you discuss World Bank' s Report on the governace and law?
- Give us your thoughts on the logic that if development starts with people, then we have to start with education.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echnology and knowledge in terms of helping to produce our life?
- How can we better organizing and how can we determine what knowledge people need and what is the best way to deliever the knowledge?
- What do you think is Korea's narrative and major themes?

Rober Lucas Jr. 교수

- What is difference between technology and knowledge?
- When we heard the word 'Human Capital' , we think about people and education. What do you associate Human Capital with?
- Are we closer to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nature of Korea' s miracle? If so, what lessons can we draw from Korea' s experience for countries to follow?
- Could discuss the findings of your paper "Making a Miracle," and role of learning by doing in human capital accumulation.
- Since your pape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do we now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we able to better explain why some countries can grow rapidly and some cannot? The implication

being that rapid economic growth can be replicated.

○ One of the biggest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facing Korea is a rapidly shrinking labor pool due to rapid aging population and decreasing fertility rate. How can countries like Korea which rely heavily on human capital address this challenge?

○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students today? Do you see a change previously?

Dwight Perkins 교수

○ How should people judge of the President Park?

○ What the government and farmers did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sector in early development?

○ It is really hard to get understand difference gap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hich is much wire than East and West Europe or America. Where do we have to start to think about how to get development point?

○ KDI was working with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egan a collaboration to study Korea's social and economic transforamtion. I've heard some episode how you joined this group. Professor Edward Mason said he took the responcebility of this project only if you and Professor Cole were able to join this project. Could you share this story?

○ Please explain about the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vid Cole 교수

○ As far as I know you were the person who recommended Korea government that setting up an institute was the most important at that time. Could you explain the way the KDI was established?

○ Unfortunately, Professor Irma Adelman was passed away right before we've contact her. Could you share what role she took as an women economist and introduce her works to the visitors?

○ 28 scholars from Harvard joined the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in 1972-1973. And you were the chief professor of this committee. Could you tell us what was the aim of this committee and how did you elect professor among many scholars in Harvard?

a. In 1975, the committee was withdrawal since they thought KDI was able to research and make economic policy alone. And surprisingly, it became the one of the known institute and it took only 5 years. Was there any other reason you think?

Daron Acemoglu 교수

- Could you explain what do you mean by inclusive institution and why they are important to promoting development? Can you also discuss that using Korea as an example as you do in your book ‘why nations fail’
- We would like you to give us the first landscheme.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so much could be done in last hundred years and count on same type of development essential?
- Many people believe that Korea was able to devleop rapidly, because it had good govern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other words, good governmance. How do you define governance or what things do you associate with good goevernance? Why is it important to development?
- How should history judge President Park? Is there different way may be assessing economy part?
- Over the years both the research and practices very negative perception. Some people always says Korean benefit from foreign aid and some people says maybe Korean was the exception. Which sould be the role of foreign aid and can it have any impact?

Barry Eichengreen 교수

- Over the years both the research and practioners very negative perception of foreign aid. Some people always says Korean benefit from foreign aid and some people says maybe Korean was the exception. What lessons would you draw for other development countries?
- You’ ve touched on issues; shared growth and inequality. What do you think Korea did ensure that growth was?
- In 1970s, it is all about heavy and chemical industry. Some said Korea did a great job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the argument that it might be premature or definitely over investment. Could you tell us about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evelopment and what happened later on?
- We’ ve learn in the past low inflation is better than the high inflation rates. In the 1980s, Korea also went through that macro stablization and liberalization. Could you discuss the reform and policy efforts fo the 1980s on macro stabilization and liberalizatio. Why was it necessary despite the heavy burden on society?
- There is a quote that you got a sick and you also give us medicine. Can you talk about what do you think of the factors of those crises and how Korea responses to this?
- How should history judge President Park? Is there different way may be assessing economy part?

IV. 참고자료-인터뷰 영상



Professor Barro



Professor Krueger



Professor Deaton



President Jim Kim



Mr. Paul Romer



Professor Lucas



Professor Perkins



Professor Cole



Professor Acemoglu



Professor Eichengreen